

이랜드 백화점·쇼핑몰 광주 동시 입성

송원과 임대계약 'NC백화점' 6월 2일 영업 밀리오레 자리 'NC웨이브' 내달 29일 개장

이랜드그룹이 백화점과 의류 쇼핑몰 동시 개점을 발표하고 광주 입성을 공식화했다.

이랜드는 16일 ㈜송원과 위탁경영 계약이 완료되는 현대백화점 광주점(옛 송원백화점) 건물을 장기 임대해 'NC백화점'으로 이름을 바꿔달고 6월 2일 영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다음달 29일에는 옛 광주 밀리오레 자리에 20~30대를 겨냥한 의류 쇼핑몰 'NC웨이브(WAVE)'를 개장할 계획이다.

이랜드는 30~40대가 주 고객인 백화점과 20~30대가 주 고객인 쇼핑몰을 동시에 여는 '투-트랙' 전략으로 지역 내 유통 주도권을 장악한다는 계획이다.

이랜드는 NC백화점 광주점이 NC

간판을 달고 광주에 오픈하는 첫 번째 백화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 NC백화점 송파점이나 강서점에 선보였던 직매입 백화점이 아닌 수수료 매장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형태의 백화점으로 운영한다.

이랜드리테일은 "기존 현대백화점의 고정 고객과 단골 고객을 그대로 흡수하는 것이 현재 우선 과제"라며 "새로운 유통 채널을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운영되던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NC백화점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여 신규 고객까지 유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난 2011년 인수한 밀리오레 자리에 선보이는 NC웨이브는 상권에 맞게 설계된 맞춤형 매장으로 지난 3월 당산에 선보인 여성 패션 전문관 'NC레이디'에 이은 두 번째 '원타겟(특정 고객층 대상) 쇼핑몰'이다.

20~30대를 주고객으로 삼는 만큼 의류매장의 80%를 제조·유통 일괄화 의류브랜드(SPA)와 편집매장 등 '새로운 유통 채널을 선보이는 것'으로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1~2주마다 상품 구성을 바꾸는 현지매장(팝업스토어)을 운영해 고객에게 신선한 제품으로 젊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광주역 상권에서 30~40대 고정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NC백화점과 총장로 젊은 층의 거리 1번지에 20~30대를 타겟으로 한 NC웨이브를 동시 오픈해 광주 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이라며 "지역 상권에 맞는 차별화된 출점 전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으며 특히 의류업계를 중심으로 지각변동을 불러올 치열한 상권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영업시간 위반 대형마트 과태료 최대 1억원 부과

영업시간 등의 규제를 위반한 대형마트에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점포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명령을 한 차례 위반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 액수는 2차 위반시 7000만원, 3차 위반시 1억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매출 100억원 미만 점포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현행 과태료는 점포 매출액에 관계없이 1차 위반 1000만원, 2차 위반 2000만원, 3차 위반 3000만원이다.

정부는 경영악화로 무급 휴업·휴직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 범위에서 180일 한도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또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막기 위해 외부 감사인의 감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신충식 농협은행장 광주서 현장회의

신충식 NH농협은행장이 지난 16일 오전 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를 방문, 현장과 소통하는 경영회의를 주관했다. 이날 회의는 임직원 70여명이 참석했으며 2사분기 사업추진 전략회의 및 은행장 특강, 영업점 방문과 고객면담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신 행장은 고객 맞춤형



광주은행, 순천정원박람회장에 '기업정원' 오픈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16일 순천만정원박람회장에 참여정원에서 송기진 광주은행장 및 조총훈 순천시장, 송영수 조지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은행 기업정원(The Castle & Line) 오픈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희 순천시의회 의장 김홍균 광운대학교총장 중앙회장 및 주요 기관장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은행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공식후원은행으로서 기업정원 '더 캐슬&라인'을 직접 조성해 관람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400㎡에 걸쳐 조성된 정원은 고객자산 안전하게 보호하는 광주은행의 안정성으로 표현했으며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선은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동시에 고객과 은행을 이어주는 신뢰를 나타냈다.

정원내엔 관람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정자도 마련돼 시민들의 편안한 휴터가 될 예정이다.

이날 오픈식에서 광주은행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후원을 위해 판매한 '꾸루꾸미직금' 후원금 3000만원과 자외선차단 선크림 전달식을 갖고 박람회 성공개최를 기원했다.

/최재호기자 lion@

aT, 도매시장 출하 촉진자금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김재수)가 농산물 도매시장의 농산물 출하매대 결제 기능을 강화해 출하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2013년 도매시장출하촉진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16일 aT 광주전남지사(지사장 성창현)에 따르면 농안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은 340억원의 예산 중 112억원이 광주·전남에 배정돼, 올해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기간은 1년만기로 선도금의 경우 1.5%, 결제자금은 4.0%를 기본 금리로 하되 매년 평가에 의해 최우수 업체와 우수업체에게는 1.0%와 0.5%의 금리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대상자는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공판장, 시장도매인, 중도매(법)인 등이다. 자금의 용도는 선도금의 경우 농산물 유지를 위한 생산자(단체)와의 출하약정, 결제자금은 도매시장에 상장 거래되는 농산물의 대금 결제용이다.

성창현 지사장은 "광주·전남의 경우 전년대비 17억원을 증액해 고품위의 신선 농산물 수집체계를 갖추으로써 지역 농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자금의 경우 오는 22일부터 광주전남지사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 문의: (062-940-7022).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금융권 연대보증 내달 폐지 '하우스푸어' 지원 대책 강화

내달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연대 보증이 폐지되고 하우스푸어 지원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회 정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우선 5월부터 제2금융권에 대한 연대보증 관행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예외적 연대보증 범위가 크게 줄어든다.

1990년대 외환 위기 당시 연대보증 피해자의 신용 회복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하면서 발생한 하우스푸어에 대한 추가 대책도 검토된다.

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및 개인워크아웃을 활성화해 수해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완화하고 일시금으로 받은 주택연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와 주택금융공사는 하우스푸어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들여 채무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일반 채무자는 원금의 최대 50%, 기초수급자 등은 원금의 최대 7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 '바퀴드림론'을 국민행복기금에서 운영하되 지원 기준을 신용 등급과 무관하게 4000만원 이하로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중산·서민층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 장기 렌드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가 추진된다. 불합리한 금융 관행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뤄지며 꺾기 규제의 법적 근거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조회회사는 하반기부터 개인신용 등급 변동 사항을 통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민의 금융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대출 금리 산정 체계가 개선되며 비교 공시도 강화된다.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금감원 직권 감사를 강화하고 채권 추심업자 요건을 강화해 과도한 채권 추심을 방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중소 채권회수 '매출채권보험' 인기

호남신보, 올 인수금액 6700억원으로 확대

최근 매출채권보험이 인기를 얻으면서 전체 보험 가입 액수를 이르는 '인수금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의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최대 손실액의 80%까지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2004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호남본부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광주 등 호남지역에서 134개 업체가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했으며 전체 인수금액도 1668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인수금액 4675억원의 35.7%에 이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경기회복 지원과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올해는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를 전년보다 43.3% 증가한 67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업체당 최고 보상한도는 지금까지 20억원으로 운용해오던 30억원으로 확대했다.

노용훈 신용보증기금 호남본부장은 "장기 불황기에는 대기업을 포함해 모든 거래처의 부실 위험이 큰 만큼 중소기업들이 신보의 매출채권보험 활용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GOHEUNG SPACE-FESTIVAL

2013 광주우주항공축제

2013. 4. 18 [목] ~ 4. 21 [일] 4일간

주최: 고흥군

주관: 고흥군우주항공축제추진위원회

후원: 전라남도

참여기관: KARI 나로우주센터우주과학관,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주요내용: 우주항공 전시·체험 행사 80여종, 어린이 우주인 선발대회 등

문의: 061-830-5224, www.festival.goheung.go.kr

작은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고흥군의회

GOHEUNG-GUN COUNCIL

광주일보 창간 6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개·폐막식 및 기타 행사장소: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 산 6-1 고흥만

강의 컨퍼런스 및 단편영화상영: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892-67 고흥문화회관

http://www.igoheung.com